

초국경도시 훈춘 변화의 중국적 요인: (신)동북현상과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

박철현**

목차

- I. 서론
- II.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경제적 난제와 지린성
 - 1. (신)동북현상과 「지린보고」
 - 2.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
- III. ‘삼화삼동’ 전략의 변용: 훈춘의 ‘국제화 창구도시’ 건설
 - 1. 공업화
 - 2. 도시화
 - 3. 농업현대화
- IV. 결론 : 초국경 도시와 지린성 도시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과 훈춘의 ‘국제화 창구도시’ 건설」(『EAST SEA REGIONAL BAROMETER』, 29,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2018)을 토대로 재작성한 글이다.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I. 서론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주도하는 「두만강 유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 TRADP)」이 시작되면서, 중국 훈춘(琿春)은 한반도, 러시아, 태평양에 인접한 변경도시라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우세에 기초하여 주로 물류단지, 위탁저장, 국제운송, 무역, 금융 등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발전의 중심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태평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가지지 못한 중국 동북지역으로서는 북한의 나진항을 빌려서 태평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이른바 ‘차항출해(借港出海)’의 거점도시로서의 훈춘의 가치는 매우 중요했다. 기존 「두만강 유역개발계획」을 토대로, 2005년에는 참여국가들을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reat Tumen Initiative : GTI)」이 시작되면서, 북한 청진, 중국 연지(延吉), 러시아 나훗카였던 사업대상지역도 한국 동해안 지역, 북한 나선 경제무역지대, 중국 동북지역과 내몽고 자치구,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 몽골 동부지역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훈춘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변경지역의 발전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우세에 기초하여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훈춘은 많은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역사적 연구를 제외하면, 이 연구들은 「두만강 유역개발계획」과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이 가져온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 주제를 살펴보면,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합작시범구, 중러 호시(互市)무역구, 훈춘개발의 영향력, 보호세금제도, 경제개발현황과 발전전망, 창지투(長吉圖) 개발, 나선지역 인프라 확충, 관광개발 전망, 자유무역지대, 조선족 디아스포라, 도시네트워크 등이다.¹⁾ 그 외 이 지역 개발이 가져

은 사회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도 일부 있다.²⁾ 주로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한 이들 연구의 특징은 훈춘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냉전의 종식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적 협력을 통한 발전의 중심지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훈춘이 21세기 ‘북방의 선진(北方的深圳)’이 될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근거는 대부분 이와 같은 ‘국제개발 담론’이다.³⁾ 하지

-
- 1) 훈춘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꽤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태홍, 「훈춘 및 두만강개발의 내용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2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991); 김부용 임민경, 「창지투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훈춘을 중심으로」,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김철, 「북중 국경무역 활성화와 나진 선봉지역 인프라 확충방안」, 『통일문제연구』 12권 2호(평화문제연구소, 2000); 이진영, 「중국의 창지투 계획과 조선족: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연구』 7권 2호(세계한문문화연구원, 2013);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서울: 푸른길, 2011; 강태호 외, 『북방 루트 리포트: 환동해 네트워크와 대륙철도』, 서울: 돌베개, 2014. 한편 중국 선행연구는 매우 많은데, 그 주제는 국내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郭文君, 「琿春國際合作示範區」, 『延邊大學學報』 1期(延邊大學, 2015); 劉國斌 杜雲昊, 「論東北亞絲綢之路之紐帶」, 『東北亞論壇』 3期(吉林大學, 2014); 張楠 胡水, 「中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範區發展現狀及問題研究」, 『經濟視覺』 9期(吉林大學, 2013); 王柏玲 朱健 劉政, 「環日本海航線建設背景下的琿春市產業結構優化研究」, 『東北亞論壇』 2期(吉林大學, 2012); 鄭洪運 姜恒勇, 「圖們江區域經濟合作進程中琿春市的城巿功能定位及發展戰略」, 『延邊黨校學報』 1期(延邊大學, 2011); 梁明, 「建設琿春國際經濟合作示範區戰略思路」, 『國際經濟合作』 12期(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2010); 劉麗琴 李秀敏, 「論邊境縣城經濟優勢產業的選擇: 以琿春市爲例」, 『經濟問題探索』 8期(雲南省發展和改革委員會, 2005). 연구 논문에 비해 단행본은 통계, 연감, 지방지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 2) 김민학 박철현, 「북-중-러 접경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특구와 변경의 변증법」, 『만주연구』 21집(만주학회, 2016); 박현귀, 「반(反)중국정서와 중러 접경도시: 우수리스크, 수이펀허, 훈춘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51권 2호(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 3) “북방의 선진”은, 1980년대 초 경제특구로 시작하여 초고속 성장을 통해 현재 ‘1선 도시(一線城市)’ 중 하나가 된 광둥성(廣東省) 선진(深圳)처럼 훈춘을 그 지정학적 지정학적 우위를 잘 활용하여 동북지역 연해 개방도시로서 발전시키자는 중국 관방(官方)의 전략에서 나온 일종의 미래 목표이다. 다음을 참고. <http://www.hunchunnet.com/>

만 훈춘은 여러 국가들의 국경에 접하고 있는 ‘초국경’ 도시이지 ‘무국적’ 도시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훈춘은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吉林省)의 도시이기 때문에 훈춘 도시변화에 대한 전망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국제개발 담론’만이 아니라, 동북지역과 지린성이라는 중국 국내적 맥락을 구성하는 힘과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국제개발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힘과 주체들이 어떠한 훈춘의 도시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의 문제를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분석했을 뿐, 동북지역 지린성의 도시라는 중국 국내적인 힘과 주체가 훈춘의 도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한 연구가 훈춘 도시건설을 ‘삼화삼동(三化三動)’의 문제와 관련시키기는 했지만, 훈춘 도시변화의 문제에 관한 기존 ‘국제개발 담론’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춘 도시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국내적 맥락을 구성하는 힘과 주체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⁴⁾

이 연구는 개혁기 중국 훈춘의 도시변화를 주로 「두만강 유역개발계획」,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과 같은 국제적인 차원의 힘들과 주체들에 의해서 분석해왔던 기존 연구를 비판한다. 훈춘은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접하는 국경지역이지만, 동시에 지린성에 속한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훈춘의 도시 변화는 국제적인 차원의 힘과 주체만이 아니라, 동북지역과 지린성이라고 하는 중국 국내의 힘과 주체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즉 동북지역-지린성으로 이어지는 국내 다양한 힘들과 주체들이 상호작용하여 훈춘 도시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에 주목

archives/51181/ (검색일: 2019년 4월1일); http://news.163.com/13/1025/01/9COD2P8E00014Q4P_mobile.html (검색일: 2019년 4월1일)

4) 中共琿春市委 琿春市人民政府, 「琿春: 深入實施“三化三動”戰略全力構建“國際化窗口城市”」, 『經濟視覺』1期(吉林大學, 2012). 삼화삼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2장을 참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제적인 차원의 힘들과 주체들에 의해서 훈춘이 향후 21세기 “북방의 선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일변도의 ‘단선적(linear)’ 전망과는 많이 다른, 훨씬 복잡한 도시변화의 가능성과 맞닥뜨릴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국제개발 담론’만 보면 훈춘의 전망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훈춘은 ‘동북현상(東北現象)’과 ‘신(新)동북현상’을 겪고 있는 동북지역 지린성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은 기업도산, 노동자 실직, 인구감소, GDP성장률 감소 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두만강 유역개발계획」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 훈춘의 도시변화에 대한 접근은 그 지정학적 지정학적 우세에 기초한 관련 주변국들 사이의 경제적 협력이라는 ‘국제개발 담론’ 시각에서 이뤄져왔는데,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이라는 동북지역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국내문제 담론’이라는 시각에서 훈춘의 도시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현재 중국 동북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난제를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의 해결을 위한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을 통해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삼화삼동’ 전략이 도시 훈춘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발견내용을 정리하고, 도시 훈춘의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북방의 선전”이라는 단선적 도시전망을 넘어서, ‘국제개발 담론’과 ‘국내문제 담론’의 시각을 균형있게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Ⅱ.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경제적 난제와 지린성

여기에서는 지린성의 ‘삼화삼동’ 전략의 배경이 되는 동북지역의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 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지린보고(吉林報告)」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장(浙江)과 같은 동남연해지역이 이미 1990년대에 ‘사영기업가(私營企業家)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장화 개혁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국유기업 개혁을 완료한 것에 비해서, 동북지역은 길게는 100년이 넘는 중화학공업 부문 중대형 기업들이 집중된 곳으로 2000년대 초 까지도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은 시작되지 않았고,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관행과 이에 적응한 노동자들이 시장경제 확산이 초래한 사회와 경제의 침체를 겪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린성이 내놓은 전략이 바로 ‘삼화삼동’이다.

1. (신)동북현상과 「지린보고」

지린성을 포함하는 중국 동북지역은 과거 만주국(滿洲國) 시기를 전후하여 형성되어 1949~1978년 사회주의 시기 내내 중국 최대의 중화학공업 밀집지역으로 존재했다. “공화국의 큰아들(共和國長子)”, “공화국의 장비부(共和國裝備部)”, “동방의 루르(東方魯爾)”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석탄, 금속, 철강, 기계, 철도, 조선, 화학 등 분야의 중대형 국유기업(國有企業)과 소속 노동자들이 집중되어있는 “선진지역”이었다.

1980년대 중국이 개혁기에 들어서 시장이 점차 사회와 경제를 운용하는 핵심기제로 자리 잡았지만 동북지역의 이들 국유기업은 이러한 시장화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락한다. 특히 1990년대 도시지역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파산, 조업정지, 공장폐쇄, 노동자 해고 등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지역 사회와 경제가 함께 쇠락하는 ‘동북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북지역 중화학공업 기지의 대표도시 선양(瀋陽) 테시구(鐵西區)는 ‘해고의 도시(下崗之城)’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⁵⁾ 200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공업기지 개조(老工業基地改造)’를

5) 박철현,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 선양시(瀋陽市) 테시구(鐵西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7권 1호(중소문제연구소, 2013), 250쪽.

핵심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東北振興)」 정책이 실시되어 동북지역 중대형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된다. 2015년 2월15일 신화사(新華社)는 2014년 동북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동북현상’이란 표현을 사용한다.⁶⁾ 신동북현상은 기업파산과 노동자 해고로 대표되는 기존 동북현상의 문제점은 일정하게 해결되었다는 전제에서, 당시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된 ‘인구감소’와 ‘GDP 성장을 감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2015년 동북 3성인 랴오닝(遼寧) 지린 헤이룽장(黑龍江)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0.55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⁷⁾ 이 지역의 ‘인구감소’는 낮은 출산율 외에도 ‘인재유출’이 중요한 원인이다. 동북지역 경제의 쇠퇴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재(人才)’가 동북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2016년 상반기 중국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GDP 성장률’ 순위에서 랴오닝, 헤이룽장, 지린은 각각 31위, 29위, 26위라는 최하위 권을 기록했다. 사실 이러한 ‘인구감소’와 ‘GDP 성장률 감소’는 상호 영향을 미쳐서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심지어 “투자는 산하이관을 넘지 않는다(投資不過山海關)”이란 표현이 유행할 정도가 되었다.⁸⁾ 여기서 산하이관은 전통적으로 동북지역과 관내(關內)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투자자들의 동북지역 투자기피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동북현상 및 신동북현상은 동북지역의 사회경제적 ‘난제(難題)’가 되었고,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8월 전(前) 월드뱅크 부총재인 린이푸(林毅

6) <http://news.163.com/15/0216/05/AII5RTS300014AED.html> (검색일: 2019년 4월1일)

7)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12233.shtml> (검색일: 2019년 4월1일).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숫자를 합한 것이다. 2015년 중국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1.62였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8) <https://baike.baidu.com/item/%E6%8A%95%E8%B5%84%E4%B8%8D%E8%BF%87%E5%B1%B1%E6%B5%B7%E5%85%B3> (검색일: 2019년 4월10일)

夫) 베이징대학 교수가 이끄는 베이징대학 ‘신구조경제학 연구중심(新結構經濟學研究中心)’의 연구팀이 지린성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지린성 발전개혁위원회(發展和改革委員會)와 함께 「지린성 경제구조 전환 업그레이드 연구보고(吉林省經濟結構轉型昇級報告), 이하 지린보고」를 발표한다. 이 「지린보고」의 발표 직후 동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린보고」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이에 대해 린이푸 연구팀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여러 논자들이 참여하는 논쟁으로 비화된다.⁹⁾ 「지린보고」의 핵심내용은 지린성이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약점’인 방직과 소비자가전 등의 경공업을 보완해야 하고, ‘강점’인 장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린보고」의 주장에 비판을 제기한 논자들은 과잉생산능력 감소와 부채 감소를 위한 ‘공급 측 개혁(供給側改革)’이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린성이 경공업을 한다면 기존 상하이, 광둥, 저장과 같은 경제발전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기업과 상품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¹⁰⁾ 「지린보고」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 자체가 바로 동북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비교우위론’ 같은 산업정책 같은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형단위제(典型單位制)’라는 동북지역 특유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구조

9) 이 논쟁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동북지역의 사회와 경제를 인식하는 보다 역사적 구조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http://diverseasia.snu.ac.kr/?p=299> (2019년 4월1일).

10) 「지린보고」의 주장에 비판을 제기한 논자들은, 인허증권(銀河證券) 수석 애널리스트 순젠보(孫建波), 상하이재경대학(上海財經大學) 경제학원 원장 텐귀창(田國強), 중국런민대학(中國人民大學) 구역도시경제연구소(區域與城市經濟研究所) 장커윈(張可雲) 교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국도연구소 연구원 샤오진청(肖金成) 등이다. 이들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diverseasia.snu.ac.kr/?p=299> (2019년 4월1일).

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

2.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

삼화삼동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동북지역의 사회경제적 난제인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린성 차원에서 제기된 발전전략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삼화(三化)’는 공업화(工業化), 도시화(城鎮化), 농업현대화(農業現代化)를 가리킨다.

‘공업화’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업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제조업 생산능력과 결합시키는 새로운 공업화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중국제조 2025」로 표현된다. 「중국제조 2025」는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축적한 제조업 생산능력을 정보통신기술과 결합시켜서 중국 제조업 역량을 질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동북지역은 사회주의 시기에 형성된 중화학공업 부문 중대형 국유기업의 최대 밀집지역인데, 개혁기에 들어서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하여 1990년대 중후반 동북현상이 발생하였고, 동북지역의 사회와 경제는 침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린성정부가 추진하는 공업화는 농업위주 산업구조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위주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업화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제조업 생산능력과 ‘결합’시켜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가리킨다.

‘도시화’는 앞서 공업화와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 중 도시 상주인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양적 도시화가 아니라, 기존의 도시화와는 다른 ‘신형(新

11) 전형단위제는 물리공간적 측면, 사회공간적 측면, 행정구역 측면에서 사회주의 시기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동북지역 특유의 단위제(單位制)를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diverseasia.snu.ac.kr/?p=299> (2019년 4월1일).

型)도시화'를 가리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화를 가리키는 표현이 '성시화(城市化)'가 아니라 '성진화(城鎮化)'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로 도시는 '성시(城市)'라고 하는데, 신형도시화에서는 '성진(城鎮)'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성(城)'은 기존의 도시를 가리키는데, '진(鎮)'은 농업인구(農業人口) 보다 '비(非)농업인구'가 많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지대가 형성되어있고 면적도 비교적 넓은 지역이며, 이에 비해 '향(鄉)'은 농업인구가 비농업인구보다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성진화'는 기존의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기존 도시지역만큼의 도시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보다는 도시화가 더 많이 진행된 '진'을 도시화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 2014-2020」에 따르면, 신형도시화의 핵심은 '인간의 도시화(人的城鎮化)'인데, 여기서 '인간'은 농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의 도시화'는 곧 농민을 도시민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도시화는 농민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진', 소도시(小城鎮), 중등도시(中等城市) 등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화 전략은 개혁기 기존 도시화가 '도농격차', '지역격차', '계층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면 지린성정부가 추진하는 도시화는 곧 신형도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민이 중소도시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동북지역 도시화의 특수성이다. 앞서 보았던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으로 인해서 동북지역은 외지(外地) 농민공은 물론 동북지역 출신 농민공도 장기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이 지역 도시로 이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농민공은 사회와 경제의 쇠락이 진행되고 있는 동북지역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관내' 지역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一線城市)'나 동남 연해지역의 발달된 도시들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이들 도시

와 달리 동북지역 도시들에는 ‘성중촌(城中村)’ 보다는 ‘판자촌(棚戶區)’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동북지역 도시들에는 농민들이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진입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위해서 도시에 진입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농민공들의 집단 거주지인 ‘성중촌’은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기존 도시 노동자들의 거주지역이 지역 전체의 사회경제적 쇠락과 함께 판자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린성이 추진하는 도시화는 농민공의 도시 이주를 적극 유도하지만, 농민공 이주를 유도하려는 도시가 진, 소도시, 중등도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중요한 차별성을 보인다. 실제로 지린성 최대 도시 창춘(長春)은 2015년 기준보다 낮은 학력과 거주지, 취업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농민공을 비롯한 ‘외지인(外地人)’의 창춘시 호구취득 기준을 제시하여, 외지인의 적극적인 도시 진입을 고무하고 있을 정도다.¹²⁾

‘농업현대화’는 생산수단의 현대화, 생산기술의 과학화, 경영방식의 산업화, 농업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 제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지주산업과 상품의 개발, 기초시설의 현대화, 생태환경의 현대화, 농업노동자의 현대화, 농민생활의 현대화를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지린성은 백두산으로 대표되는 풍부한 농업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린보고」는 기존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바꿔서 경공업 등 새로운 산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5대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이다. 특히 농업의 범위를 단지 식량, 채소, 과일과 같은 농산품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린성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관

12) http://www.changchun.gov.cn/zw/xxgk/gkzl/cczhengbao/2015n/d05qzb/szfwj_1890/201702/t20170215_257729.html (검색일: 2019년 4월5일)

광자원, 건강요양(健康療養)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여 지린성을 중국 여름 피서와 겨울스키의 메카로 만들고, 관광, 양로, 건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린성의 농산품과 식품 브랜드를 만들고, 생물의약과 중약(中藥)산업을 발전시키고, 특히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인삼 관련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삼동(三動)’은 ‘투자가 촉진하고(投資拉動)’, ‘프로젝트가 선도하며(項目帶動)’, ‘혁신이 동력을 제공하는(創新驅動)’ 전략을 가리킨다. 앞서 언급한 “투자는 산하이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기업도산, 노동자 실직, 인구감소, GDP성장률 감소에 직면하여 투자자는 투자손실을 우려해서 투자를 기피하고, 투자기피 때문에 또 다시 기업도산, 노동자 실직, 인구감소, GDP성장률 감소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가 선행되어야 각종 프로젝트가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혁신에 의한 질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에서 ‘삼화’는 목적이고 ‘삼동’은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삼화삼동’ 전략의 변용: 훈춘의 ‘국제화 창구도시’ 건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에 기초하여, 훈춘은 어떻게 국제화 창구도시를 건설하고 있는가? 국제화 창구도시란, 지린성의 지역 발전전략인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 건설에 있어서 훈춘이 이 지역이 해외로 나가는 ‘창구’가 되는 도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와 ‘투자가 촉진하고, 프

초국경도시 훈춘 변화의 중국적 요인: (신)동북현상과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

로젝트가 선도하며, 혁신이 동력을 제공하는’ 지린성 삼화삼동은 훈춘에서 국제화 창구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¹³⁾

1. 공업화

과거 훈춘은 지린성 최대의 탄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림자원도 풍부하여, 석탄, 구리, 금, 목재 등 각종 천연자원의 개발과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광공업기업과 임업기업 위주의 공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88년 이들 공업기업의 68%가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등 ‘공유제(公有制) 기업’이었는데, 이후 1990년대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 과정의 산업구조조정과 소유권 개혁을 통해서 사영기업과 외국기업 등 ‘비(非)공유제 기업’의 비중은 증가했고, 2005년 공유제 기업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여 31.7%에 그치게 된다.¹⁴⁾ 이 무렵 앞서 언급한 동북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동북진흥(振興東北)」 전략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¹⁵⁾

이러한 광공업과 임업 위주의 공업 구조를 가진 훈춘은 최근 ‘4대 산업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적 에너지 광물생산 기지, 현대화된 수출가공업,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동북아시아 초국경 국제관광이 바로 그것이다. 훈춘은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관한 실시의견」, 「훈춘시 자원형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시점(試點) 실시방안」, 「훈춘시 2011년 10억 위안 이상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 실시방안」, 「훈춘시 산업구조 총체계획」 등을 통해서, 기존 저부가가치 중공업 위주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13) 이하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팩트는 다음에서 인용(中共琿春市委琿春市人民政府, 2012).

14)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琿春市志 1988-2005』,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5, 281-282쪽.

15) 「동북진흥(振興東北)」 전략은 2004년 8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동북지역 진흥전략으로 그 핵심내용은 ‘노후공업기지(老工業基地)’ 개조로, 당시 중앙정부 총리였던 원자바오(溫家寶)가 영도소조(領導小組)의 조장(組長)이었다.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기존 발전소와 광업그룹을 확대 개편하여 석탄과 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클러스터, 러시아의 석유와 북한 나선지역의 정유소를 결합시키는 석유화학 산업클러스터, 금 동 텅스텐을 포함하는 금속제련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¹⁶⁾ 이러한 국제적인 수준의 석유화학 및 금속제련 클러스터 조성은 훈춘이 처해있는 노후공업기지 개조, 즉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의 해결이라는 사회경제적 난제의 해결과 직결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 목제품 가공, 건축자재, 기계, 장비제조업을 육성하여 두만강 지역 범위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갖춘 대형 선진제조산업 클러스터, 동북아시아를 겨냥한 전자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 고급패션 일용품 농부산물(農副產品) 등 경공업 클러스터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물류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 국제상품교역중심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자원을 통합하고, 전문시장을 육성하며, 동북지역 물자의 수출창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두만강 개발과 국제육해물류노선을 결합시켜서 국제물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¹⁷⁾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경이 접하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태평양을 통해한국과 일본까지 이어지는 초국경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이러한 훈춘의 '4대 산업기지' 건설전략은 기존 '세계의 공장'으로서 축적한 기존 제조업 역량을 정보통신기술과 결합시키고 관광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공업화' 전략을 국제화 창구도시 건설과 결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4대 산업기지'

16) <http://www.ocn.com.cn/free/201205/shiyou281050.shtml> (검색일: 2019년 4월10일)

17) 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는 2014년 1기, 2016년 2기, 2019년 3기가 각각 완성되었다. 훈춘국제상품교역중심은 2014년부터 시험영업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이곳에 기반하여 중국-러시아 무역정보화 관리플랫폼이 개통되었다.

초국경도시 혼춘 변화의 중국적 요인: (신)동북현상과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

건설이 ‘국내’ 생산요소의 최적 결합을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초국경도시 혼춘이 접하는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생산요소들의 최적 결합을 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혼춘의 공업화는 지린성의 ‘삼화삼동’ 전략을 혼춘의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혼춘의 공업화 전략에서도 지린성 ‘삼화삼동’이라는 ‘국내문제 담론’이 ‘국제화 창구도시’라는 ‘국제개발 담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2. 도시화

혼춘은 동북지역 ‘자원형 도시(資源型城市)’ 중 하나이다. 자원형 도시는 도시와 그 인근 지역의 광산, 삼림 등에서 부존된 천연자원의 채취 및 가공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를 가리킨다. 따라서 자원형 도시에서 해당 자원은 도시의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안산(鞍山)의 철, 푸순(撫順)과 랴오위안(遼源)의 석탄, 다칭(大慶)의 석유 등이 도시와 그 핵심 천연자원이다. 다칭은 1959년 유전이 발견되면서 석유 채굴을 위한 공장과 관련 시설 및 노동자 거주지역을 기초로 성장하여 중국을 대표하는 석유 채굴 및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산유량의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 데다가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까지 겹쳐서, 석유 산업은 물론 도시 자체의 사회와 경제가 쇠락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즉 과도한 자원의존형 산업구조가 근본 원인이 되어 쇠락하는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개념이 바로 자원형 도시이다.¹⁸⁾

혼춘은 석탄을 중심으로 구리와 금의 채굴과 관련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특히 석탄산업은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을 위주로 발전했고 혼춘 전

18) 박철현, 「중국 동북 지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노후공업도시’」, 『역사비평』 116호(역사비평사, 2016).

역에 탄광이 산재했는데, 개혁기 들어서는 사영기업도 등장했다. 1990년대 들어서부터 기업파산과 노동자 해고 등 동북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개혁이 진행되었다.¹⁹⁾ 이와 같은 자원형 도시가 봉착한 사회경제적 쇠락이라는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린성정부는 훈춘을 「국가 자원형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개혁 시점(國家資源型城市可持續發展改革試點)」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²⁰⁾

자원형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훈춘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살기 좋은(宜人居)’ 국제도시 건설이다. 이를 위해서 시정부는 국유기업을 동원하여 훈춘시 동쪽에 국제적인 수준의 생태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며, 구도심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다. 생태도시는 중국 국내인은 물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한국, 일본 등지에서 관광, 사업 등의 목적으로 훈춘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흡수할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도시공간구조에서도 ‘육중오횡(六縱五橫)’의 간선도로 건설을 통해서 기본 골격을 짜고, 판자촌 개조, 염가(廉價)주택 및 공원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박물관, 체육관, 미술관, 도서관 등도 건설되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과거의 역사문화자원을 동원하여 ‘개방도시’, ‘허브도시’, ‘자원도시’, ‘문화도시’ 등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과거 ‘편벽한 변경’에 위치한 군사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동북아시아를

19)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2005, 617-624쪽.

20) 「국가 자원형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개혁 시점」은 자원형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험지역을 전국에 설치하는 2013년 11월12일 국무원 통지를 가리킨다. 다음을 참고: http://www.gov.cn/zwggk/2013-12/03/content_2540070.htm (검색일: 2019년 4월1일); 2014년 10월30일 지린성정부는 훈춘이 이러한 시험지역에 선정되도록 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다음을 참고: <http://www.hunchunnet.com/archives/8327/> (검색일: 2019년 4월1일).

초국경도시 훈춘 변화의 중국적 요인: (신)동북현상과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

아우르는” 지리적 우세를 점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도시화에서도 훈춘은 석탄, 구리, 금 위주의 자원형 도시에서 탈피하기 위한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개혁기 도시화 과정에서 쇠락한 공업지역 주민들이 밀집된 판자촌 등을 개조하며, 도시로 이주해온 농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신형도시화 전략을 추진하고, 생태도시를 만들어 외국인 장단기 거주자를 유치하는 등 국제화 창구도시 전략이 두드러진다.

3. 농업현대화

앞서 「지린보고」에서는 농업은 지린성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 중 하나로 보고, 특히 농업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지린성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훈춘은 유기농 쌀, 황소, 한약재(中藥材), 식용버섯(食用菌), 채소, 과일 등을 농업부문 ‘6대 지주산업’으로 삼고, 훈춘에 기반을 둔 고유 브랜드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그간 취약했던 농업금융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시정부 산하에 ‘물권융자유한책임공사(物權融資有限責任公司)’를 설립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제도화시켰다.

아울러 기존의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 방식을 뛰어넘어 ‘가정농장(家庭農場)’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제를 모색하고 있다.²¹⁾ 가정농장이란 가족구성원을 주요 노동력으로 삼아서, 농업의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 생산경영을 겨냥하는 것이다. 가정농장의 농민

21)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가족농 체제 즉, 개별 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가구(戶) 별로 농업생산과 경영의 주체가 되는 체제를 가리킨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농업생산과 경영 방식은 인민공사(人民公社)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농업체제였는데, 개혁기 들어서 이러한 집단농업체제를 대체하여 ‘가정연산승포책임제’가 지배적인 농업생산과 경영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인민공사는 해체된다. 1980년대 초 ‘가정연산승포책임제’의 전면적 도입을 계기로 중국 농업생산성은 크게 증가했다.

은 농업 전업농가로서, 도시로 이주하여 농민공이 되거나 농촌 향진기업(鄉鎮企業)에서 공업에 종사하여 획득하는 수입이 전혀 없다.²²⁾

즉 가정농장은 농촌 집체정부가 기존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반납한 농지사용권을 모아서 특정 가정에 대규모 농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민은 대규모 농지에서의 경작을 통해서 농업경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경영이 가정농장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가정농장의 확산으로 인해서 1949년 건국 이전과 같은 ‘대지주(大地主)’의 출현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기 농민의 대규모 도시이주로 농촌에 생겨난 ‘휴한(休閒)’ 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반납된 농지의 활용으로 창출한 수익으로 농민의 도시이주와 정착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로 훈춘은 신동북현상의 영향으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심각하여 휴한 경지가 증가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농장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가족구성원, 대농(大農), 공동출자자(合伙人), 도농법인(城鄉法人) 등 다양한 경영주체에게 농민이 반납한 농지사용권을 매매하여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농민의 도시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와 양로 관련 비용을 해결해준다.²³⁾ 이렇게 훈춘은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개발과 농업경영 방식의 전환으로 신동북현상으로 인한 농촌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2) 향진기업은 농촌 공업기업을 가리키는데, 원래 인민공사(人民公社)에 부속되어 농업에 필요한 기계의 생산과 수리, 비료 생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던 기업인데, 개혁기 들어서 인민공사 해체와 함께 주로 생활용품 같은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신했고, 농민은 향진기업에 취업하여 농업 종사 이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23) <http://www.chinanews.com/house/2014/01-13/5730232.shtml> (검색일: 2019년 4월10일)

Ⅳ. 결론 : 초국경 도시와 지린성 도시

기존 연구에서 도시로서의 혼춘 변화는 언제나 국제적인 차원의 힘들과 주체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왔다. 「두만강 유역개발계획」,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이 바로 그것들이며, 국내적 차원의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도 기본적으로는 지린성과 해외를 연계시켜서 혼춘의 도시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므로, 혼춘은 수십 년 내에 “북방의 선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도시변화를 분석하는 기본 인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혼춘의 미래전망은 “북방의 선전”에 그치지 않는다. 2009년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지정을 계기로 혼춘이 “미래의 홍콩(未來的香港)”, “동방의 로테르담(東方鹿特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그 근거로서 동해와 가까운 위치, 반경 200km 안에 러시아와 북한의 항구가 다수 밀집되어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혼춘의 도시발전은 중국 동북지역 전체는 물론 몽골 등 동북아시아 전체에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⁴⁾ 이러한 주장은 서론에서 지적한 ‘국제개발 담론’의 시각에서 도시 혼춘의 변화를 전망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동북진흥」 정책을 단순히 ‘지역발전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²⁵⁾ 즉 「동북진흥」 정책을, 과거 사회주의 시기 형성된 중화학공업 부문 중대형 국유기업의 침체와 이에 따른 지역 전체의 사회와 경제의 쇠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후공업기지 개조’ 정책이 아니라, ‘2005년 라오닝 연해 경제벨트’→‘2009년 지린성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2012년 두만강 국제합작시범구’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역개발계획’으로 보고 이를 배경으로 혼춘 도시변화를 전망하는 데서도

24) http://news.china.com.cn/zhuanti/2012jlx/2012-12/09/content_27361579.htm (검색일: 2019년 4월1일)

25) 강태호 외, 2014, 326-331쪽.

드러나듯이, 훈춘 도시변화의 전망에 대한 인식은 ‘국제개발 담론’의 시각에 기초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훈춘은 물론 초국경도시로서 국제적인 힘과 주체의 맥락에서 그 도시변화를 평가 전망할 수 있지만, 그러한 평가 전망에 동북지역-지린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노후공업기지와 소속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에 속하는 도시라는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린성은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이라는 사회와 경제의 쇠락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삼화삼동’ 전략을 내놓았고, 훈춘은 ‘자원형 도시’로서 도시화, 공업화, 농협현대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국내문제 담론’, 즉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동북현상과 신동북현상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시각에서 보면, 훈춘 도시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국제개발 담론’이 투사하는 것과 같은 장밋빛 전망 일변도로만 구성되기에는 곤란한 측면들이 매우 많다. 향후 ‘국제개발 담론’과 ‘국내문제 담론’에 대한 균형 있는 분석을 통해서 훈춘의 도시변화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훈춘, 동북현상, 신동북현상, 초국경도시, 국제개발 담론, 국내 문제 담론, 노후공업기지

(논문투고: 2019.06.03 / 논문심사완료: 2019.06.21 / 논문게재 확정일: 2019.06.22)

참고문헌

- 강태호 외, 『북방 루트 리포트: 환동해 네트워크와 대륙철도』, 서울: 돌베개, 2014.
- 김민환 박철현, 「북-중-러 접경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특구와 변경의 변증법」, 『만주연구』 21집(만주학회, 2016).
- 김부용 임민경, 「창지투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훈춘을 중심으로」,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김철, 「북중 국경무역 활성화와 나진 선봉지역 인프라 확충방안」, 『통일문제연구』 12권 2호(평화문제연구소, 2000).
- 김태홍, 「훈춘 및 두만강개발의 내용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2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991).
- 박철현,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 선양시(瀋陽市) 테시구(鐵西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7권 1호(중소문제연구소, 2013).
- 박철현, 「중국 동북 지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노후공업도시」, 『역사비평』 116호(역사비평사, 2016).
-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서울: 푸른길, 2011.
- 이진영, 「중국의 창지투 계획과 조선족: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연구』 7권 2호(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3).
- 박현귀, 「반(反)중국정서와 중러 접경도시: 우수리스크, 수이펀허, 훈춘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51권 2호(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 郭文君, 「琿春國際合作示範區」, 『延邊大學學報』 1期(延邊大學, 2015).
- 梁明, 「建設琿春國際經濟合作示範區戰略思路」, 『國際經濟合作』 12期(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2010).

王柏玲 朱健 劉政, 「環日本海航線建設背景下的琿春市產業結構優化研究」, 『東北亞論壇』 2期(吉林大學, 2012).

劉國斌 杜雲昊, 「論東北亞絲綢之路之紐帶」, 『東北亞論壇』 3期(吉林大學, 2014).

劉麗琴 李秀敏, 「論邊境縣域經濟優勢產業的選擇: 以琿春市爲例」, 『經濟問題探索』 8期(雲南省發展和改革委員會, 2005).

張楠 胡冰, 「中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範區發展現狀及問題研究」, 『經濟視覺』 9期(吉林大學, 2013).

鄭洪蓮 姜恒勇, 「圖們江區域經濟合作進程中琿春市的城市功能定位及發展戰略」, 『延邊黨校學報』 1期(延邊大學, 2011).

中共琿春市委 琿春市人民政府, 「琿春: 深入實施“三化三動”戰略全力構建“國際化窗口城市”」, 『經濟視覺』 1期(吉林大學, 2012).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琿春市志 1988-2005』,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5.

<http://www.hunchunnet.com/archives/51181/> (검색일: 2019년 4월1일).

http://news.163.com/13/1025/01/9C0D2P8E00014Q4P_mobile.html (검색일: 2019년 4월1일).

<http://news.163.com/15/0216/05/AII5RTS300014AED.html> (검색일: 2019년 4월1일).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12233.shtml> (검색일: 2019년 4월1일).

<http://diverseasia.snu.ac.kr/?p=299> (2019년 4월1일).

http://www.gov.cn/zwggk/2013-12/03/content_2540070.htm (검색일: 2019년 4월1일).

<http://www.hunchunnet.com/archives/8327/> (검색일: 2019년 4월1일).

http://news.china.com.cn/zhuanti/2012jlx/2012-12/09/content_27361579.

초국경도시 훈춘 변화의 중국적 요인: (신)동북현상과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

htm (검색일: 2019년 4월1일).

<http://www.chinanews.com/house/2014/01-13/5730232.shtml> (검색일: 2019년 4월10일)

<http://www.ocn.com.cn/free/201205/shiyou281050.shtml> (검색일: 2019년 4월10일)

http://www.changchun.gov.cn/zw/xxgk/gkzl/cczhengbao/2015n/d05qzb/szfwj_1890/201702/t20170215_257729.html (검색일: 2019년 4월5일)

Reference

<Historical Materials>

Hunchun Shizhi 1988-2005, Changchun, Jilin Renmin Chubanshe, 2005

<Book>

KANG Tae-ho, *Northern Route Report: Pan East Sea Network and Continental Railway*, Seoul, Dolbaege, 2014

LEE Ok-hee, *North Korea-China Border Area: Urban Network of North Korea-China Border Area in Transition*, Seoul, Purugil, 2011

<Articles>

KIM MIN HWAN, PARK CHULHYUN, “Regulating Floating Populations and Foreigners in Hunchun, a Chinese City in the Border Area of North Korea-China-Russia”, *Journal of Manchuria Studies* 24, 2016

KIM BU-YONG, YIM MIN-KYOUNG, “The Presence of Development of Chang-Ji-Tu Area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Hunchun”,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Vol.3 No.17, 2012

KIM CHUL, “The Activation of North Korea-China Border Trade and the Method for Ra-Sun Area Infrastructure”,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2-2, 2000

KIM TAE-HONG, “The Content and Vision of Development of Hunchun and Dumankang”,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2, 1991

- PARK CHULHYUN, “The Content and Geography of Knowledge on the Production of Space in the Reform Era China: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Old Industrial Base in Tiexi District, Shenyang”, *Sino-Soviet Affair* 137, 2013
- PARK CHULHYUN, “New Perspective of Research on Northeast Region of China: ‘Old Industrial City’”, *Critical Review of History* 116, 2016
- Lee Jean Young, “Chiang-Ji-Tu Project and Korean-Chinese in China: Looking for a New Role as a Diaspora”, *Journal of Diaspora Studies* 7, 2013
- Park Hyun-Gwi, “Anti-Chinese Sentiments and Border Cities at the Sino-Russian Border: An Ethnographic Study of Ussuriisk, Suifenhe, and Hunchun”, *Korea Cultural Anthropology* Vol.51 No.2, 2018
- GUO WEN-jun, “Hunchun Demonstration Zone: New Window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umen River Region”, *Journal of Yanbian University* 48(1), 2015
- LIANG MING, “Strategic Thought about Making Hunchu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12, 2010
- Wang Bai-ling, Zhu Jian, LIU Zheng, “Analysis on the Optimization of Hunchun Industrial Structure under the Background of Construction of the Japan Sea Round Route”, *Northeast Asia Forum* 21(2), 2012
- LIU Guo-bin DU Yun-hao, “On the Ties of Northeast Asian Silk Road: Strategic Thinking of the Construction of Tumenjiang Region (Hunchu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Northeast Asia Forum* 3, 2014

- LIU Li-qin, LI Xiu-min, “Comment on the Choice of Economic Advantage Industry of Yanbian Prefecture: Focusing of Hunchun”, *INQUIRY INTO ECONOMIC PROBLEMS* 8, 2005
- LI Jiax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Hun Chun Demonstration Area: On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Public Administration & Law* 9, 2015
- ZHENG Hong-lian, JIANG Yu-heng, “Development Strategy and Urban Function of Hunchun in the Course of Tumenjiang Area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Journal of Yanbian Party School* 26(1), 2012
- Hunchun CCP Committee, Hunchun Government, “Hunchun: Making “International Window City” through Implementing “San Hua San Dong” Strategy“, *Economic Vision* 1, 2012

Chinese Factors in the Changes of Transborder City Hunchun: (New) Northeast Phenomenon and the ‘San Hua San Dong’ Strategy of Jilin Province

Park, Chulhyun

This research criticizes previous researches which analyzed the changes of Hunchun city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forces and subjects lik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and 「Great Tumen Initiative e」. Hunchun is not only located in the border region where China, Russia,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encounter with each other, but also belongs to Jilin Province of China. Therefore, the changes of Hunchun city are not only decided by the international forces and subjects, but also by the complex influences of the domestic forces and subjects of Northeast region and Jilin Province of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alone could make the vision of Hunchun city much positive, but it should be noted that Hunchun city is one of the Northeast region and Jilin Province cities which have been suffering ‘Northeast phenomenon’ and ‘New Northeast phenomenon’. In other word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domestic forces and subjects of Northeast region and Jilin Province a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to influence the changes of Hunchun city. In this way, we could find much more complex feasibilities of the changes of Hunchun city, which are very different from the linear rosy vision that Hunchun city will become “a Shenzhen of the 21st century”.

Key Words : Hunchun, Northeast phenomenon, New Northeast phenomenon, Transborder c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Domestic problem discourse, Old Industrial Base